

청년층은 '취업난' 제조업선 '구인난'

광주·전남북 5인이상 사업장 3만여명 부족

영세업체 기피현상 심각... 인력난 전국 최고

광주·전남·전북지역의 5인이상 사업장 인력 부족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 부족의 35% 가량이 10인 미만 영세 중소업체에 집중됐고, 노동 강도가 높은 제조업의 구인난이 두드러졌다.

10일 광주지방노동청이 발표한 '광주권역(제주 제외)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농림·

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인원 부족률은 전국 평균 3.23%보다 1.17% 포인트 높은 4.4%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족률로, 부족인원도 2만9천842명에 달했다. 다른 지역의 부족률은 경인(4%)·부산(3.17%)·서울(2.86%)·대전(2.85%)·대구(2.07%) 순이었다.

반면 통신업(80명)·전기·가스 및 수도업(101명)·금융 및 보험업(855

명) 등의 업종은 비교적 인력난이 덜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난 속에서도 이처럼 광주·전남·전북지역 인력 부족이 심하고, 영세 중소업체 일수록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은 지역 경제여건이 열악한데다 영세 업체 일수록 직원 처우 등 채용 여건에서 불리해 취업 희망자들이 기피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국의 인력 부족률은 지난 2003년 2.18%에서 2004년 2.54%, 2005년 3.07% 등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2.74%를 기록하며 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으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비맥주 대학생 '카스 챌린지'

오비맥주(대표 이호립)의 자기개발 프로젝트인 '카스 챌린지(Cass Challenge)'에 참여한 호·영남지역 120명의 대학생들이 최근 일본 도쿄 출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도쿄에서 한국 전통놀이 즐기기, 일본축제 참가 등 이색 미션을 수행하고 11일 오후 귀국했다.

(오비맥주제공)

대부업계 대출 1년새 51% 급증

작년말 3조4,218억... 외국계 중심 서민금융 급속 잠식

대형 대부업체들이 작년 한 해 대출 규모를 50% 이상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대부업체의 대주주가 대부분 일본과 미국 등 외국계 금융회사임을 감안하면 서민금융 시장의 주도권이 급속히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인 59개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작년 말 현재 3조4천218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1조1천572억원) 급증했다.

국내 대형 대부업 시장이 외국계 중심으로 재편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

면 이들 업체의 대출증가는 외국계 대부업체의 시장 잠식이 심화하고 있음을 의미로 해석된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상위 10개 대부업체 중 국내 대주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3개 회사에 불과하며 이들의 대부 잔액 절유율은 10%

개사 총액의 20%에도 못미친다.

회사별로는 메릴린치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폐인슬리캐피탈이 지난해

대출은 5천21억원 늘어 59개사 전체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2005년에 출범한 폐인슬리캐피탈

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종부

재상환비율(DTI) 등 정부의 주택담

보대출 규제 틈새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끌어올렸다. 폐인슬리캐피탈은 6월 말 대출 잔액이 7천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계 신용대출업체인 산와머니 역시 1년 동안 대출 잔액을 1천 억원 이상 늘렸다.

KT가 대주주인 케이티렌탈(811억 원), 재일교포계인 파트너크레디트(777억원), 프라임산업의 프라임캐피탈(517억원), GE캐피탈 계열의 지

이리엘에스테이트(501억원), 리먼브

러더스의 매화케이스(463억원)

가 그 뒤를 따랐다. 대부업계 관계자

는 "올해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영업

을 강화한 점을 감안할 때 서민금융

시장 잠식은 더욱 심화했을 것"이라

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대출 규제 틈새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시장점유율을 급속히 끌어올렸다.

이에 비해 비은행기관은 농산물 판매대금 유입 등으로 상호금융이 큰 호조를 띤 데 힘을 얻어 감소세에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9월 중 총여신액은 2천762억 원 늘어 전월(5천426억원)보다 증가폭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 예금은행 대출 증가액은 3천448억원에서 2천 32억원, 비은행기관 대출은 1천978억 원에서 730억원으로 증가폭이 반등 감소됐다.

/정필수기자 bungy@

학교기업 설립 쉬워진다

학교 밖 시설운영 허용

사업 종목도 대폭 확대

내년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되는 등 학교기업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선 학교의 자율화 견의를 받아들여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기업이란 교내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의 제조, 판매, 가공 등을 직접 수행해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한 학교 소속의 부서를 말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학교기업

소재지가 학교의 교사 또는 교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학교 밖의 시설과 장소에서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생들의 현장실습 등을 고려해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102개 업종이 학교기업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여관업, 게임장·노래방·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만 제외하고 금지업종은 19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학교기업의 사업영역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기업 관련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최소 2학점 이상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올 대출사원 초임

198만3,000원

올해 기업체의 4년제 대출 신입사원 초임은 198만3천원으로 작년보다 10만4천원(5.5%)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체 1천336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2007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4년제 대출 신입사원이 받는 초임급은 200만원에 육박했다.

기업규모별로 종업원수 1천명 이상인 대기업의 대출초임은 230만8천원 원이고 500~999명은 201만2천원, 300~499명은 204만2천원, 100~299명은 184만9천원이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보험업이 259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196만8천원, 제조업 195만2천원,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191만8천원, 도소매업이 188만원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부장·조직부사장 423만원, 차장이 363만6천원, 과장 312만9천원, 대리 268만5천원이다. /연합뉴스

계좌번호 직접 디자인

光銀 고객맞춤 서비스

광주은행은 11일 "고객이 통장 계좌번호를 마음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고객맞춤 계좌번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객맞춤 계좌번호 서비스는 고객이 10자리의 랜덤번호를 평생 내 계좌번호로 직접 디자인하는 것으로 일명 '골드 계좌번호 서비스'로 불린다.

서비스 신청은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12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개설할 수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제1회 광주인보페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 27일

광주·전남 지역 골프대회

광주·전남 지역 골프대회